



# 만로랜드 교육센터

MAN Roland Training Center



## 맞춤식 기술교육 인쇄품질 향상 선도

서울 용산구 갈월동 만로랜드코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NGS 빌딩.  
이 건물 출입문에는 상호보다 더 큰 글씨로 쓰여진  
'만로랜드 교육센터' 안내표시가 있다.  
교육센터는 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은 그동안 본지가 탐방취재를 해왔던  
교육부 산하 정규교육기관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쇄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곳으로 통한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인쇄 노하우와  
이론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봤다.



(과정별 교육내용)

기초 신입 코스(월~금)	ROLAND700 운영자코스(월~금)	고급과정(월~화)
1. 오프셋 인쇄의 기본 지식 2. 잉크, 습수, 용지의 기본 지식 3. 인쇄판의 제작 원리 4. 기계의 기본 구조와 각종 장치의 기본조작 5. 안전 작업 6. 작업준비 및 작업 시 기본 점검 사항 7. 인쇄판, 블랭킷 장착 8. 급지, 배지 작업의 원리 및 준비 9. 컬러인쇄의 기본 작업 10. 작업 마무리 및 기계관리(유지, 보수)기초	1. ROLAND 700의 운영, 조작 및 기계 유지보수 2. 피콤 모니터의 이해와 운영에 대한 숙지 3. 습수유닛, 잉크유닛, 실린더 팩킹의 이해(인쇄 품질과의 관계) 4. 인쇄 실습에 의한 RCI의 사용 및 기능 실습 5. 기계의 유지보수 핵심 포인트 등 ROLAND 700 운영 및 기장으로써 필요 사항	1. 피더 및 급지정렬 부분의 세팅 및 유지보수 2. 잉크 롤러의 구성, 분해, 세팅, 유지보수 3. 잉크파운틴과 잉크 슬라이더의 정확한 세팅 및 유지보수 4. 습수의 기본 지식·습수유닛의 세팅, 유지보수 5. 습수냉각기의 구성 및 유지보수 6. 기계의 올바른 유지보수 및 운항의 중요성

### 기본을 알면 인쇄가 보인다

만로랜드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는 지난 2005년 말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1백여 명이 넘는 교육생들을 배출했다. 교육센터의 설립목적은 명료하다. 신입사원부터 오랜 경험을 가진 기장에 이르기까지 인쇄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 및 센터운영을 맡고 있는 박덕호 이사(센터장)는 “인쇄기를 다루는 오퍼레이터들은 전문적인 인쇄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본원리에 대한 접근없이 단순히 조작법만을 배우는 형식이다 보니 오작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전반적인 기계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센터에서는 교육생들의 수준과 목적에 맞추어 각각에 맞는 인쇄이론을 강의하고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현장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차별 교육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기초 신입 코스, ROLAND 700 운영자 코스, 그리고 고급과정이 그것이다. 먼저 기초 신입 코스는 신입사원이나, 인쇄초보자 혹은 인쇄기를 다루지 않는 관리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오프셋 인쇄의 기본원리를 비롯해 잉크, 습수, 용지에 대한 기본지식 등 기본작업 및 인쇄기계의 기본작동 방법을 배우게 된다.

3년 이상의 인쇄 경험 및 ROLAND 700에 관심이 있는

오프셋 기장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자 코스는 기계의 운영, 조작 및 유지보수에 무게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기계의 유지보수 핵심 포인트를 비롯해 ROLAND 700 운영 및 기장으로써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한편 운영자 코스와 마찬가지로 오프셋컬러인쇄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과정에서는 기계의 유지보수는 물론 잉크유닛의 관리와 세팅이 인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각 코스의 교육기간은 일주일이며(월~금, 고급과정은 월~화 2일) 매월 첫째, 셋째 주에 열린다. 교육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시되며, 오전에 한 두시간에 걸쳐 이론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실습을 위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다 보면 예정보다 조금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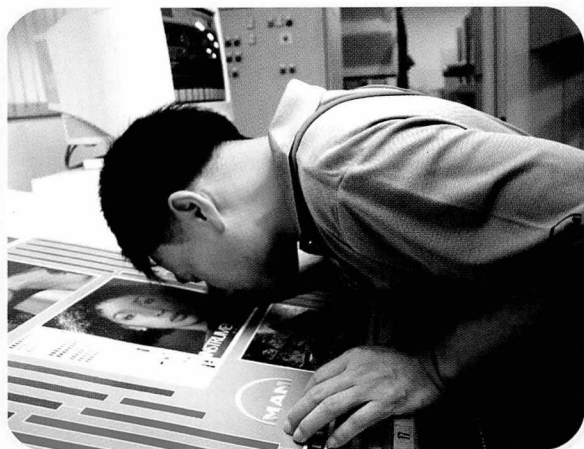
### 철저한 맞춤형 수업으로 만족도 높아

교육일정은 다소 짧은 편이지만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교육센터를 방문했던 지난 8월 9일은 마침 운영자 코스과정 4일차 교육이 진행중이었다. 교육인원은 총 4명이었으며, 대신인팩과 타라티피에스의 오퍼레이터 및 엔지니어들로 구성됐다.

김민규 타라티피에스 과장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어서 좋다. 현장에서는 원칙보다는 경험에 의존하거나 내가 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신인팩 서울공장에서 근무하는 조윤택씨는 “다른 인

쇄기 메이커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아왔다. 외국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언어소통이 어려워 이해도가 낮았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센터장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달과정이 매끄럽고, 시간대비 교육효과가 높은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 지방 및 소규모 인쇄사 지원 방안 늘릴 계획

만로랜드코리아는 앞으로 지방에 있거나 혹은 직원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인쇄사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덕호 이사는 “인쇄기 한 대로 운영되는 영세업체에서 교육을 위해 기장이 일주일동안 현장을 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역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기간동안 숙련된 만로랜드코리아 직원을 현장에 대신 투입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아울러 교육센터가 서울에 있다보니 서울·경기 이외의 지방업체 입장에서는 교통, 숙식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위해 지난 해 몇 차례 실시했었던 방문·출장강의를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현재 만로랜드사는 전세계적으로 독일 오펜바흐의 그래픽센터를 비롯해 세계 각 지사에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한·중·일 3개국에 각기 특화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지난 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강점인 코팅분야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인터뷰> 박덕호 만로랜드코리아 이사(교육센터장)

## “교육투자는 장기적인 생산성 확대의 척도”

**교육센터의 설립배경은 ★★★** 직원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기업경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배터리를 재충전해 쓰듯이 인력도 재교육시키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인쇄산업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했다. 인쇄기를 다루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인쇄교육은 대부분 선임자가 후임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 교육이라는 것이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당장 조작에 필요한 단편적인 것들을 전수받는 형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인쇄기에 대한 기본 원리라든가, 유지보수 능력이 떨어지고, 기계활용도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교육센터는 고객이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최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실습장비 현황은 ★★★** 코팅기능이 장착된 ROLAND 700이 주력 장비이다.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일정과 교육코스를 논의하게 된다. 각 코스별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매월 1, 3주에 실시되는데 업체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한가한 월초에 교육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첫째주 교육에 신청이 몰리는 편이다. 하지만 일정 조정에 대해 업체들이 잘 받아들이는 편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 ★★★** 각 코스별로 소정의 교육비를 받는다. 대부분 인쇄실습



에 소모되는 잉크, 제지비용으로 쓰인다. 공간과 실습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정원은 5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 교육내용에 대해 수강생들이 만족하고 있고, 이것이 입소문으로 퍼

지면서 문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지방업체와 5인 미만의 소규모 인쇄사들의 참여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업체들을 위한 출장강의 및 소규모 인쇄사들을 위한 교육기간중 대리인력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